

개봉동이 달라진다... 42층 랜드마크·853세대 대단지 조성

서울시, 최고 42층 스카이라인 구축 용도지역 통합하고 용적률 완화 고척로 6~8차로 확폭 등 교통 개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최고 42층, 853세대 규모의 보행생활권 중심 재개발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120-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와 고척로 교차점에 위치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매봉산과 고척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등 우수한 녹지 및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197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기반시설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 내 흔재돼 있었던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되고, 용적률 완화(20%) 및 사업성 보정계수(2.0) 등이 적용돼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먼저 개봉1동사거리 일대 최고 42층 규모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생활권 중심부에 상징적 경관타워를 배치, 지역의 중심 경관을 형성한다. 또 매봉산에서 고척근린공원을 잇는 폭 30m의 열린 통경축을 조성해 개방감 있는 도시경관과 녹지 연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사거리 생활권 중심부에는 상징경관형 타워와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복

합주동을 배치하고 세곡초 연결부에는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단지 내 단차 발생 구간에는 테라스형 주동, 남부순환로변에는 직각 배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건축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 주변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남부순환로로 동·서 간 단절된 보행구간을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고 '생활권 순환녹지 보행

체계'를 완성, 개봉·고척을 보행일상권으로 연결한다.

또 세곡초에 접한 고척로33길 주변은 방과후교실, 작은도서관, 돌봄시설 등 교육·돌봄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고척로와 생활권 중심부에는 저층부상가를 도입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공공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해 고척로를 기존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폭하고 남부순환로 접속부 교통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세곡초 인근에는 공원을 조성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개봉1동사거리 교차로변에는 생활권 중심 저층부상가와 어우러지는 개방형 공원을 조성한다. 고척로변에는 시니어교육실, 디지털교육실 등 공공시설을 계획해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이설·재설치해 지역 내 배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 집중호우

시 빗물처리 능력을 높이고 침수 위험을 낮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개봉동 12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구역지정'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매봉산에서 고척근린공원까지 녹지와 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개봉·고척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돼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중 구역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과정 및 건축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아이들 방학 점심까지 책임진다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시행 돌봄 확대 등 5년간 약 2조 투입

서울시가 올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의 점심까지 챙기는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아침·야간·주말 돌봄을 확대하고, 조부모 돌봄수당과 서울런 지원도 넓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현실적 돌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8796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 총 1258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아동센터'를 기존 419개소에서 2030년 450개소까지 확충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권역별로 개별 지역아동센터들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새롭게 설치·운영해 서울 전역에서 균일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자치구·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까지 통합·연계해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라는 방과 후 돌봄 통합 브랜드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404개소까지 확충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이주배경 보호자 학교참여 지원

AI 통역·16개 언어 소식지 제공

낮은 언어와 교육제도 장벽으로 자녀 학교생활을 돕기 어려웠던 이주배경 보호자를 위해 서울교육청이 학교 참여 지원에 나선다. 학부모 대상 학교 이해 교육부터 다국어 정보 제공, 상담과 지역 연계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를 자녀교육의 동반자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 없는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교육청은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 대상 자녀 양육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자의 학교 이해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가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연수는 4월부터 12월까지 연 10회 내외로 진행되며, 전·편입 학생 보호자에게는 참여를 안내하고 희망 보호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이해 ▲가정 내 학습지도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소통 및 지역 교육자원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대면 교육 시에는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언어권 보호자의 참여를 돕는다.

다국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총 16개 언어로 제작되는 '다가감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도 진행된다.

김천홍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익숙하지 않은 교육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들이 학교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녀교육의 동반자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성장과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390억 들여 농업계 경영난 해소

포장재 지원하고 저리 대출

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 및 농식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지원과 저리 대출 등 총 39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농어업 분야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포장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식품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해 총 40억 원 규모의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수출 경쟁력 유지와 함께 신선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희종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출용 파우치 등 포장재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고, 물류비 역시 베트남 25%, 튀르키예 150%까지 급등했다"며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제품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 350억 원 규모의 '농어업 긴급경영자금 저리 대출'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성남시, 40개 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개최

구직자 맞춤 컨설팅 등 운영

성남시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6 성남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디에스피, 블레스모터스, 엠에스티씨, 파리크라상, 농협유통 등 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총 23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남시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이날 오후 1시 시청 1층 누리홀에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삼균 교수가 'AI 활용, 취업 성공의 지름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취업 전략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설계 ▲전직지원 ▲재무 ▲경력단절 ▲사회공헌 등 구직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진로성향검사와 AI 기반 심층면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